

지금부터 한국의 성인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알고있는 일본의 성인식은 어떤 격식에 맞추어서, 성인이 되는 사람이 끼모노를 입고, 엄격하게 행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 비교해서, 조금, 느슨한 분위기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인식에 출석하는 사람은 친구라든지 선배, 그리고, 자신보다 연하의 사람이 모여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는 사람이 만약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동료도 출석합니다.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사람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출석해서 축하합니다.

일본과 같이 끼모노를 입는다든지, 엄격한 격식에 의해서 행하여지지는 않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의 생활에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인식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날 성인이 되는 사람의 애인이 예쁜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로 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날은 모든 거리에서는 젊은 사람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도 거리는 밝은 분위기로 활발하게 됩니다. 나도 그 날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양친으로부터 야단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술을 마시는 날은 없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성인식의 분위도 정말 좋지만 일본의 성인식과 같이 조금 엄격한 분위기도 더해지면 더욱 좋은 성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날 만은 자신의 미래라든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성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말, 멋있고, 좋은 성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